

‘신장 223cm, 윙스팬 243cm’ 괴물, NBA에 뜬다



▲ 빅터 웹반야마, 그의 윙스팬은 8피트에 이른다. 사진=FIBA, Basketball

인 드래프트는 아직도 1년여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역대급’으로 꼽히는 유럽 유망주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빅터 웹반야마. 2004년 1월생인 웹반야마는 현재 모든 드래프트 관련 매체에서 차기 시즌 1순위 지명자로 예상되고 있다.

ESPN에 따르면 웹반야마는 최근 신장과 윙스팬을 공식 측정했다. 맨발 신장은 7피트 4인치(약 223cm), 윙스팬은 8피트(243cm)로 가나왔다.

경이로운 신체 스펙이다. 신장은 7피트 4인치(약 223cm)에 육박하고 윙스팬(양팔을 좌우로 뻗을 때 한쪽 손 끝에서 반대쪽 손 끝까지의 길이)은 무려 8피트(약 243cm)다. 그런데 여기에 슛도 잘 넣고 볼 핸들링도 수준급이다. 이대로라면 NBA 드래프트 1픽은 따는 당상이다. 프랑스의 2004년생 괴물 빅터 웹반야마 이야기다.

8일 농구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2023년 NBA 신

맨발 신장 223cm는 NBA 드래프트 컴바인 기준으로 역대 최장신에 해당하는 신장이다(야오밍, 마누트 볼 등은 컴바인 공식 신장 기록이 없다). 현재 휴스턴 소속인 보반 마르야노비치가 웹반야마와 같은 223cm로 측정됐던 바 있다.

243cm에 달하는 윙스팬 역시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NBA 드래프트 컴바인 역사상 8피트대의 윙스팬을 가진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웹반야마가 역대 최초로 윙스팬 8피트의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김하성 “WBC 나가고 싶지만 팀 내 주전 경쟁 부담”

김하성은 2022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선수중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하성이 WBC에 출전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MK스포츠’에 따르면 김하성은 8일 현재 127경기에서 타율 0.256 출루율 0.330 장타율 0.383 8홈런 51타점을 기록중이다. 김하성의 좋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그의 WBC 출전 여부로 이어진다.

김하성은 이날 ‘MK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나가고 싶다. 국가대표에서 항상 잘했고, 좋은 기억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WBC, 2018년 아시안게임, 2019년 프리미어 12에서 한국 대표 선수로 뛰었다.

그럼에도 김하성은 “지금까지 WBC 출전을 선언한

선수들을 보라. 모두 슈퍼스타들이고, 자리잡은 주전들이다.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계속 경쟁해야한다.”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설명했다.

그는 “타티스도 내년에는 돌아온다. 그리고 캠프도 중요하지 않은가. 내가 캠프를 비운 사이에 다른 선수가 잘하면, 그 선수가 눈에 들게 된다. 나는 아직 확실한 주전이 아니다. 그렇기에 걱정이 된다. 나가고는 쉽지만, 불안하다.”고 말했다.

WBC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캠프 기간 자리를 비워야 한다. 경기 결과에 따라 장기간 비울 수도 있다. 빅리그에서 2년간 뛰며 얼마나 경쟁이 심하고 한순간에 자리를 뺏길 수 있는지를 체험한 그이기에 대표팀 참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프레지던트컵 한국 선수 4명 출전 역대 최다



▲ 왼쪽부터 이경훈, 김시우, 임성재, 김주형. 사진/편집=pgatour.com/타운뉴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트컵에 한국 선수 네 명이 출격한다.

6일 ‘한겨레’에 따르면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팀의 단장 트레버 이멜만(남아공)은 전날 추천 선수 6명의 명단에 이경훈(31) 김시우(27)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랭킹 기준으로 이미 출전을 확정된 임성재(24) 김주형(20)과 더불어 총 네 명의 한국 선수가 프레지던트컵 참가하게 됐다. 이는 이 대회 역대 최다이다. 종전 기록은 2011년 대회의 세 명(최경주, 양용은, 김정태)이었다.

2022 프레지던트컵은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의 웨일할로우에서 열린다. 미국과 인터내셔널팀 모두 12명씩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터내셔널팀에는 호주와 캐나다가 두 명씩, 일본, 남아공, 칠레, 콜롬비아에서 한 명씩 선발됐다.

이경훈과 김시우는 “한국 선수가 네 명이나 출전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서로 잘 알고 있어 호흡을 맞추기가 편하고, 한국말로 소통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훈은 이번이 프레지던트컵 첫 참가다. 김시우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출전한다.

선수 외에도 최경주가 인터내셔널팀 부단장을 맡아 올해 인터내셔널팀에는 총 다섯 명의 한국인이 참가한다.

1994년 창설된 프레지던트컵은 지금까지 총 13차례 열렸다. 전적은 미국이 11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 | |
|---------|----------|-----------|
| 크레딧 점수 | 1점 - 29점 | 30점 - 39점 |
| 매월 프리미엄 | \$499 | \$274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2년 현재 170.1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 Income & Resources | Single | Couple |
|--------------------|----------|----------|
| Monthly Income | \$1,719 | \$2,309 |
| Asset Limit | \$15,510 |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 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